



↑ 디 옥타곤(The Octagon)

김성수 →



↑ 컨플릭트 오브 메모리스(Conflict of memories)

이승희 →

차세대 유망주 3인방

▶ 도립미술관, 올 도내 청년작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전북청년 2018-이 작가를 주목하라'의 공모를 추진한 결과 김성수(조각·33), 이승희(비디오 설치 및 사진·37), 지현(회화·33) 작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에서 활동 중인 40세 이하 청년미술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36명(회화 18, 한국화 7, 조각 6, 공예 2, 사진 1, 설치 2)의 응모작을 접수했다.

선정절차는 1차 심사에서 응모자 전원의 서류 및 작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7명의 작가를 추렸고, 2차 심사에선 이들 작가들의 작품세계·독창성·유망함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했다.

심사를 맡았던 고충환·조관용 미술평론가는 "김성수 작가에 대해, 키네적인 요소와 놀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관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조각과 타 장르를 융합하여 확장시켜나간다면, 좋은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조각 - 김성수
비디오 설치 사진 - 이승희
회화 - 지현

내년 북경총량 아트페스티벌
기획초대전 참여기회 제공

이어 이승희 작가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것이 장점이며, 작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현 작가는 지역성의 특성을 가미한 판화적인 회화를 구사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에 한정하지



↑ No.12

지현 →

않고 활동의 무대를 넓힌다면, 유망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재료비 지원·평론가 매칭·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자격·국의 레지던시 추천·기획전시 추천 등을 지원하며, 내년 10월 북경총량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북경총량 국중미술관 기획초대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해은 기자

13시간 연창공연 세계 기네스 도전 나섰다

소리꾼 이다은, 기네스 도전 귀명창 모집

오는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판소리 5바탕 13시간 연창공연으로 세계 기네스 도전에 나서는 소리꾼 이다은 씨가 기네스에 함께 도전할 귀명창을 모집하고 있다.

13시간 동안 관람하는 사람에게는 도전 한국인문동본부에서 '13시간 귀명창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을 관람하는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는 '판소리 우리문화 체험활동'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귀명창 도전 및 봉사활동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익산시 부 전화번호(063-842-1303, 010-9166-130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소리꾼 이다은씨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인 판소리 5바탕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 기네스에 도전할 계획을 세



웠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주, 군산, 여수, 목포 등 주요도시 명소를 돌며 판소리 버스킹에도 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민들은 "세계 기네스 도전으로 판소리 세계화를 꿈꾸며 인간문화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이다은 소리꾼에게 응원을 보내주자"고 외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극단 명태 '단야별곡',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대상 수상

극단 명태의 창작가무극 '단야별곡'이 지난 5일 공주문화회관 대공연장 막을 내린 제14회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는 지역의 설화와 향토성을 담은 연극을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것으로, 이번 연극제엔 30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합을 펼쳤다.

극단 명태의 단야별곡은 작품 대상을 포함해 이원구씨가 연기상을 수상했다. 김재 단야의 흥이 서린 벽골제와 쌍용설화를 소재로 작품은 김재 태수의 딸인 단야가 벽골제 제방을 마구 무너뜨리는 청룡에게 제물로 바쳐져 벽골제와 백성들을 살려냈다. 인신공희담이다.



'단야별곡'의 연출가 최경성씨는 "단야와 쌍용설화 안에 민중의 생각과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극제 수상을 계기로, 지역 문화 공연예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 전주만성초 찾아 한지공예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전주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일선 학교에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7일 오전 전주시와 함께 전주만성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주한지 이야기'를 주제로 한지공예체험을 실시하는 등 전주한지 관련 사회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학년 2학기 수업 일정에 맞춰 '전년전주의 자랑 한문화 소개편지', '옛 것을 체험하고 새롭게 만들기'에 소개된 한지 만들기, 한지 색종이를 활용해 부채만들기 등 교과서 내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전주한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



다. 앞서 한지센터는 전주전통한지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지역교과서) 내용 중 타 지역 친구들에게 한지로 편지를 쓰는 부분에 7500부의 전주 전통한지를 삽입해 공급했다.

그동안 한지센터와 전주시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우리 고장 전주) 제작에 전주한지를 활용하는 등 전주한지 보급 사업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엔 전주중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전주한지로 제작한 2학기 사회교과서를 배포한 바 있고, 올해 1학기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1천320부를 제작해 전주지역 32개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등 전주한지 활성화 노력을 펼쳐왔다.

오태수 원장은 "초등학생들에게 한지가 체험만 하는 전통문화가 아닌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선왕 맥베스' 사전예약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송구영신의 의미를 더할 특별한 화제작을 선보인다.

소리축제는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를 오는 12월 27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지역 순회공연을 기획하면서, 전통예술을 주제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확장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와의 전주공연 공동주관 제안에 따른 것.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지난 6일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셰익스피어의 동명작품을 원작으로 한 '맥베스'는 창작음악극과 전통 연희단의 풍물 등 한국 전통예술이 어우러지는 음악극이다. 극의 배경을 조선시대로 설정한 이번 작품에선 광기 어린 조선왕으로 탄생한 맥베스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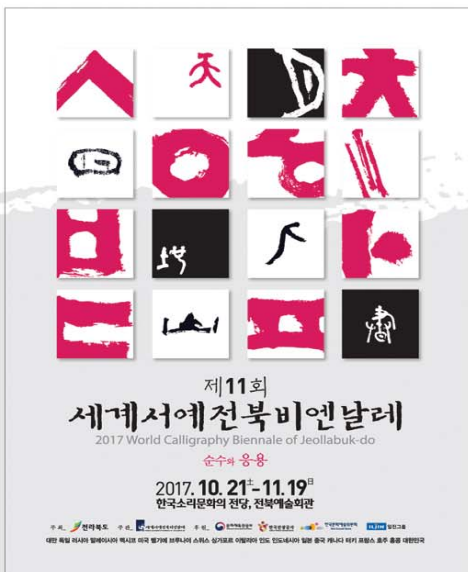
공연에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배우 남성진·이영숙 등이 출연한다. 박경훈이 음악감독을, 이아람이 작곡을 맡았다. /정해은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강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와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갤러리 R (로비)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나도 서예가 서예, 책을 만나다전		갤러리 R
서론서예전		
진, 사리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동북서예전		이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활우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람서예관	감람 송성웅전	

주최 - 전라북도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